

전남 순천에 1000병상 초대형 병원 세운다

최첨단 종합병원·바이오연구센터
초특급 메디텔 2025년까지 완공
2만1000여명 고용 경제 유발 효과
“의료·생태·관광, 도시가치 제고”

전남 순천시에 1000병상의 종합병원과 바이오연구센터를 포함한 초대형 의료융합타운이 들어설 계획이어서 지역 주민의 의료혜택 확대와 경제 활성화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보인다.

거봉그룹(회장 백용기)은 2월 26일 전남 순천시 순천만생태문화교육원에서 허석 순천시 시장, 시의원, 시민단체, 주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락희만(樂喜滿) 의료융합타운 조성계획’ 설명회를 갖고 향후 추진 계획 등을 발표했다. 락희만은 ‘즐거움과 기쁨이 가득한 곳’으로 거봉그룹이 추구하는 이상을 뜻한다.

●대규모 의료타운 계획

순천을 포함해 전남 동부권에는 첨단 종합병원이 없어 환자들이 서울이나 광주 등 대도시로 빠져나가는 현상이 있다. 순천시는 신대동 지구 일대를 의료지구로 지정하고 의료기관 유치에 진행해왔으나 지지부진하다 거봉그룹과 본격 추진에 나선 것이다.

거봉그룹은 신대지구에 대지 5만 6558㎡(1만7138평), 연면적 30만 4523㎡(9만2279평)에 1000병상의 최첨단 종합병원, 바이오연구개발센터, 호텔과 레지던스를 겸한 600실의 초특급 메디텔을 지을 계획이다. 거봉그룹은 상반기 설계 및 인허가 절차를 거쳐 올해 안에 본격 착공에 들어가 2025년 완공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1조7000여 원을 투자한다.



거봉그룹은 2025년까지 1조 7000여억 원을 들여 최첨단 의료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사진은 ‘락희만 의료융합타운’ 조감도(위쪽 사진)와 순천시 곳곳에 걸린 환영 플래카드.

의료타운은 동순천IC에서 나오면 바로 있고, 순천역에서도 차로 10분 거리다. 지역 주민은 물론 서울 등 다른 지역에서의 접근성이 좋다. 부지는 1만 세대가 입주한 대규모 아파트단지와 바로 붙어 있다. 단지 인구만 3만 명에 달한다.

●전남 동부권 100만 명 의료혜택

거봉그룹은 의료융합타운이 완성 단계에 따라 외래환자 수를 1단계(500병상) 43만7500명, 2단계(700병상) 61만 2500명, 3단계(1000병상) 85만 명으로 추산하고 있다.

프로젝트가 완성되면 전남 동부권과

경남지역 주민이 최신 의료혜택을 볼 수 있게 된다. 순천 인구는 28만2600명. 광양, 여수까지 합치면 가까운 진료 대상이 71만4200명이다. 인근 전남 고흥 보성 장흥 곡성, 경남 하동도 병생환권 이어서 100만 명이 대상이다.

거봉그룹은 첨단시설에 최고 수준의 의료진을 유치한다는 계획이다. 지역 거점의료시설의 역할은 물론 광양제철소, 여수산업단지 등에서 발생하는 각종 안전사고에 대응할 수 있는 응급센터도 들어선다.

백 회장은 “병원은 아파서 찾는 곳만이 아니라 사전에 질병을 예방하고 삶의 질

을 높이는 곳이어야 한다”며 “순천은 지리적 위치가 좋고 먹거리와 생태환경이 뛰어난 만큼 의료, 관광기능을 겸한 락희만 타운을 조성해 고향 순천의 도시브랜드 가치를 바꿔놓고 싶다”고 밝혔다.

허석 순천시장은 “이 지역에서 가장 아쉬운 것이 의료시설인데 백 회장의 고향에 대한 애정이 아니면 추진할 수 없는 사업이라 기대가 크다”고 말했다.

●“지역 개발 호재” …곳곳 환영 플래카드

계획대로 대규모 의료타운이 조성되면 이에 따른 경제효과도 엄청날 것이라는 전망이다. 의사 381명, 간호사 1200명 등 의료진과 직원 3000명이 필요하고 각종 시설의 인력까지 합치면 고용효과가 2만1000명에 달한다. 여기에 연간 6000억 원의 세수효과도 있어 순천시의 재정자립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거봉그룹의 의료타운 조성 계획이 알려지면서 지역 발전에 대한 기대감이 넘치는 분위기다.

시내 곳곳에는 ‘거봉그룹의 신대지구 락희만 의료융합타운 환영’, ‘신대 종합병원 유치 환영’ 등 시민과 시민단체, 지역 기관 등이 거봉그룹의 투자를 환영하는 플래카드 400여 개가 걸렸다.

지난해부터 개발 소식이 알려지면서 의료타운이 들어설 순천시 신대지구 주변 중층S클래스 아파트, 상가의 가격도 급등하고 있다는 것. 아파트의 경우 평당 1500만원을 호가하고, 상가는 가격 상승 기조에 매물이 자취를 감췄다고 한다.

최병배 순천시 의원은 “첨단 의료타운이 들어서면 지역주민이 바로 의료혜택을 볼 수 있어 공원 등 주거환경과 삶의 질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재범 기자 oldfield@donga.com

건강 레제길 | 우리동네 주치의의 건강학

개인 맞춤형 치료 시스템 구축 하남탑정형외과 3월 중순 개원



오정석 대표원장

가족같은 분위기의 편안한 병원을 지향하는 하남탑정형외과(대표원장 오정석·정형외과 전문의)가 3월 중순 경기도 하남시에 개원한다.

하남탑정형외과는 노년층에 주로 생기던 근골격계 질환 및 통증이 최근 20~30대 젊은층에서도 빈번하게 발생하는 최근 상황을 반영해 전문의 협진진료를 통해 전 연령대에 최적화된 정형외과 진료 서비스를 제공한다.

바로본병원과 트튼병원 척추관절센터 원장을 역임한 오정석 대표원장을 중심으로 ▲정형외과 ▲신경외과 ▲재활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 등의 분야에서 수준 높은 진료 서비스를 제공한다. 특히 척추·관절 클리닉과 신경·통증 클리닉을 통해 차별화된 정형외과 진료를 선보이는데, 도수·운동치료 센터에서 체계화된 도수 및 운동치료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는 첨단 의료기기를 완비하고 있어 높은 치료 만족도를 느낄 것으로 자신하고 있다.

오정석 하남탑정형외과 대표원장은 “사람마다 통증 부위와 정도는 다르므로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하고 환자 개인별 맞춤 진료를 위한 치료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며 “여러분의 평생주치의가 될 수 있도록 좀 더 세심하고 전문화된 의료서비스를 통해 보답할 것을 약속한다”고 전했다.

하남탑정형외과는 경기도 하남시 신평로 45 S N타워 8, 9층에 위치하며 진료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까지, 토요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2시까지다.

김재범 기자

“시골병원을 최첨단 의료기관으로”…거봉백병원, 경남 거제서 의료혁신 성공 평가

연간 21만 환자…자산가치 4000억
코로나 여파에도 4% 성장세 기록

전남 순천시에 ‘락희만 의료융합타운’을 조성하는 거봉그룹은 경남 거제시에서 낙후한 시골병원을 최첨단 의료기관으로 탈바꿈시킨 의료혁신의 성공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거봉그룹은 현재 경남 거제시 상동동에서 연간 21만의 환자가 찾는 300병상의 거봉백병원을 운영하고 있다. 거제에서 가장 큰 병원이다.

이 병원의 전신인 거제기독병원은 1969년 외국인 선교사이자 외과의사인 존 로슨 시브리 박사가 세운 이후 변변한 의



백용기 회장

료시설 하나 없는 거제도에서 보건의료활동과 지역사회 개발운동을 벌여왔다. 승고한 활동에도 불구하고 항상 경영난에 시달려야 했다. 1997년에는 외환위기가까지 겹쳐 병원의 존립이 위태로운 상황이었다. 1999년 백용기 거봉그룹 회장이 어려운 사정을 전해 듣고 병원을 방문했다.

백회장은 “병원을 홀로 둘러보다 설립 역사를 적은 녹슨 동판을 보고 감동을 받아 인수를 결심했다”며 “당시 주변 사람들이 모두 말렸지만 직원 제임과 병원 부채를 사제로 모두 해결하고 인수했다”고 말했다.

거봉그룹은 이후 3000억 원이 넘는 꾸준한 투자를 통해 현재 자산가치 4000억 원이 넘는 병원으로 키웠다. 응급실, 수술실 등 최신식 의료시설에 건강검진센터를 갖춰 웬만한 대학병원 수준이고, 올하는 명품 장례식장도 들어선다.

목심으로 이어온 투자의 성과는 경영 실적 수치에서 금세 읽을 수 있다. 1999년 인수 당시 공중보건의 4명을 포함해 의사 13명에서 현재는 전문의 32명으로, 직원도 159명에서 500명으로 늘었다. 외래 환자수도 9만 명에서 21만4000명으로 1.4배나 증가했다 그 사이 병상 수도 200병상에서 300병상이 됐다.

지난해 코로나 상황으로 대부분 병원들



거봉백병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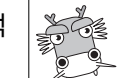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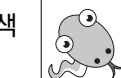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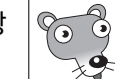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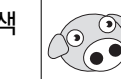
이 매출 감소를 기록했지만 거봉백병원은 오히려 4%의 성장세를 기록했다.

거봉백병원은 3000명 수용 규모의 야외 음악당과 300석의 공연전시 및 힐링공간인 ‘락희만홀’을 갖추고 문화예술인 초청 공연을 정기적으로 열고 있다. 병원을 넘어 의료와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25만 인구 거제시의 문화 허브 역할을 하고 있다.

김재범 기자

박경호의 운수 좋은 날

3월 4일(목) 음력: 1월 21일 문의: (02) 812-1201, 도원학당

 쥐	행운색: 흰색 길방: 서	 소	행운색: 적색 길방: 남	 호랑이	행운색: 검정 길방: 북	 토끼	행운색: 적색 길방: 남	 용	행운색: 흰색 길방: 서	 뱀	행운색: 청색 길방: 동
귀인의 도움으로 명예와 재물이 따르며 문서적인 문제도 자신의 소신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이성간에도 지금까지의 지연상태가 급변하여 원하는 상태로 돌입하며 좋은 인연을 맺게 될 것이다. 오늘은 실속 있는 날이다.	과욕을 부리지 않는 상태라 하더라도 문서 및 서류로 인한 주위의 반목과 질시의 분위기가 초래되며, 정신적 불안감 또한 조성되므로 명예나 이익의 추구보다는 이전의 안정 상태를 유지하도록 힘써라. 오늘은 역마다. 욕심을 부리지 마라.	앞으로 운이 좋아지는 때이나 모든 일에 지나치게 위우므로 새로운 일을 시작 할 때는 충분히 앞날을 고려하여 행하여야 한다. 급속히 성하고 곧 쇠하는 경향이 있어 시기를 보는 바가 민감해야 한다. 파격적이고 개혁적인 일을 해보고 싶다.	잠시 물러서서 다음 기회를 기다려야 할 때이다. 마음이 안정되지 않으므로 미련 있는 일이라도 과감하게 손을 떼는 것이 나중엔 손해가 적다. 무슨 일이든 앞장서지 말라. 욕심을 부리면 큰 재난이 온다. 오늘은 지살일이다. 공연히 분주한 날이다.	소원하는 일이 현재는 이루어지지 않겠으나 조금만 더 기다린다면 거의의 성취되겠다. 먼 곳의 여행은 급한 일이 아니면 보류하는 것이 좋겠다. 손재수가 있으니 도난에 주의하고 도장과 문서를 조심하라. 망신일에는 실수를 자주한다.	썰물의 때는 물이 차지 않으면 움직일 수가 없다. 시기가 올 때까지는 체념하고 기다려야 할 때이다. 태연하고 여유 있는 마음으로 차분히 노력해서 현재의 지위를 지켜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오늘은 움직이는 날이다.						
 말	행운색: 청색 길방: 동	 양	행운색: 적색 길방: 남	 원숭이	행운색: 검정 길방: 북	 닭	행운색: 노랑 길방: 중앙	 개	행운색: 적색 길방: 남	 돼지	행운색: 흰색 길방: 서
산기슭에 연못이 있고, 그 연못을 낮춤으로써 산은 보다 높아지는 것이다. 손해를 보면서 얻으며,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여 눈앞의 작은 이익을 버리고 먼 미래를 차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돼지띠와의 거래에서 신중해야 한다.	계획을 실천으로 옮길 수 있는 계기가 조성되며 직업이나 학업을 통해 보다 확고한 자신의 기반을 구축해야 하는 시기이다. 매사에 적극적인 자세로 임했을 때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시들었던 화초가 비를 만나는 날이다.	나의 운기가 쇠해서 시류에 맞지 않을 때에는 재빨리 물러나는 것이 최상의 방도이다. 무리하게 옹고 나가려 하지 말고 쇠운이 지나가기를 기다려야 한다. 잠시 물러서서 다음 기회를 기다려야 할 때이다. 오늘 일을 내일로 미루어라.	지금은 얼마든지 일을 맡아도 손조롭게 해나갈 수 있는 때이다. 일하면 할수록 주위로부터 인정받고 큰 보상을 받을 것이다. 고통을 받던 사람도 이제부터는 상승일로에 있다. 자신 있게 밀고 나아가라. 건강과 금전에 대한 변동이 이루어진다.	사리사욕을 떠나 정의를 관철해 갈 것. 또한 자기 기반을 굳게 다지고 실행할 것. 가급적 폭력은 피하라. 모든 일에 과감하게 나아가지만 자기의 능력 이상으로 일을 벌이면 실패하기 쉬운 때이다. 오늘은 겉살일이다. 노력 없이 대가를 바라지 말라.	운세는 좋은 때이며 직장에 호소하여 민첩하게 행동하면 효과를 본다. 첫 인상에서 좋게 느껴진 것은 반드시 성공할 것이다. 오늘의 기운은 인간의 감각이 발동하는 날이므로 연애문제가 일어나기 쉽다. 분쟁·의견충돌이 있을 수 있다.						

고려은단, ‘솔라C구미 샤인머스캣맛’ 출시



고려은단헬스케어는 비타민C를 구미 형태로 섭취할 수 있는 ‘솔라C구미 샤인머스캣맛’을 출시했다. 기존의 청포도 맛을 샤인머스캣의 인기를 반영해 업그레이드했다. 영국의 비타민 원료업체 DSM사의 비타민C 원료를 사용했으며, 비타민C의 함유량은 레몬 9개 분량인 500mg이다. 일일 비타민C 권장량의 500%에 달한다. 패키지는 지퍼백 타입으로, 휴대 및 보관이 용이하다. 솔라C구미는 이번에 내놓은 샤인머스캣맛을 비롯해 레몬맛과 포도맛, 복숭아맛 등 다양한 맛으로 출시되고 있다.

오늘의 날씨				4일(목)	
서울	20/30	인천	30/30	춘천	20/30
	2 13		3 11		-3 11
강릉	20/30	대전	20/70	전주	20/80
	1 11		1 12		3 13
광주	30/80	대구	30/70	부산	30/80
	4 12		2 13		6 15
창원	30/80	제주	70/80	지역	강수 확률 (오전/오후)
	4 13		10 15	날씨	최저 최고기온℃